

“한국당,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로 남을텐가”

홍영표 민주 원내대표 “남북정상회담, 예상·기대 뛰어넘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평양공동선언 이행 초당적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보수 야당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합의를 끌어낸 두 정상은 결단예 박수를 보낸다”며 “평양공동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상 불가침선언인 군사적 긴장 완화 추진으로 8000만 겨레가 더는 전쟁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은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공동선언에 명문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합의한 점에 주목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남북이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을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본인 육성으로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경협 의원이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비핵화의 구체적 표현이 나온 점, 그것도 김 위원장의 육성으로 나왔고 합의

문에도 명시된 점은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종식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북이 분단 후 처음으로 군비통제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민중당은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면서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야당 대표들도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한정애 정책위 수석부부장)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발목이나 잡겠다는 보수 야당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8000만 겨레와 5000만 국민의 명령 앞에 순응할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방북해 논의한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기대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당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만남을 계기로 국회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 바람 타고 문대통령 지지율 59.4%

일주일새 6.3%p ↑·부정평가 7.9%p ↓... 민주당 4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6주간의 하락세를 끝내고 60% 선 가까스로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5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9월 2주 차 주간집계 대비 6.3%포인트(p) 오른 59.4%를 기록했다. 20일 밝혔다.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9%p 내린 33.8%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4일 일간집계에서 52.2%를 기록한 후, 평양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 53.0%로 올랐고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에 이은 이례적 확대가 보도된 18일에는 57.7%로 크게 상승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교의 백두산 등정 계획이 보도된 19일에는 61.4%로 올랐는데, 이는 지난달 6일(63.2%) 이후 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급반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2주 차보다 4.6%p 오른 45.1%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5%p 내린 17.4%로, 지난 2주간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1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정의당은 2.2%p 내린 8.2%, 바른미래당은 0.9%p 떨어진 6.0%, 민주평화당은 0.3%p 상승한 2.7%로 각각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동성애 찬성 하나” ... 진선미 “성소수자 차별 안돼”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교육 유은혜 청문보고서 불발 산자 성윤모 청문보고서 채택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동성애 및 동성혼 등에 관한 진 후보자의 인식과 동성애와 에이즈(AIDS) 발병 간의 연관성 논란 등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진 후보자는 ‘동성애 찬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하며) 의뢰인으로 만난 수많은 사람, 성소수자도 나와 같은 사람이며 성소수자라는 것만으로 차별 받으면 안 된다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함께 왔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비판했다.

민중당 표창원 의원은 질의에서 “2016년 총선 당시 저와 진 후보자 등 몇몇 후보 대상으로 성적 소수자 지지자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은 당의 전력을 쏟아서 동성애자 지지 후보 사퇴 촉구까지 했다”며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질의와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지적과 진 후보자의 입장 표명에도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과거 진 후보자

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2002년 양성적 병역거부 재판과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 신청에 참여했던 점, 2013년 제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는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며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을 거부하고,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이 총리 “中, 한반도 비핵화 지지해 달라”

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중국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지지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덩 중리(丁仲禮)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양국 간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었으나 교류가 복원되고 있다. 한국 단체관광 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한중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도 부탁했다.

덩 부위원장은 “중국은 한국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희망하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각자의 입장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중점을 둔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덩 부위원장은 “사드 문제로 인한 장애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 중국은 좀더 깊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작성 후 지도자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자유한국당 231곳의 당협위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자리를 물러난다. 253곳 당협 가운데 사고 당협 22곳을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당협위원장이 사퇴하는 것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공개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의 반발이 당연히 없을 수 없었지만, 당이 비상사태라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일괄사퇴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

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강특위를 거쳐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재임명되거나 새로운 인물이 당협위원장에 발탁될 수도 있다. 한국당은 당협 재정비를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애초 한국당은 추석 전후로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에 들어갈 계획이 었으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로 같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 조강특위 심사로 대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 “당무감사는 60일간의 공고기간이 필요하고, 감사 후 다시 조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조강특위를 거쳐 우선으로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당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 2018 - 2호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추천 후보자 모집 재공고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2018년 9월 20일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원(비상임이사) 4명
※ 추천 후보자는 임용예정 인원 2배수 선별하여 임용권자(여주시장)에게 추천함
- 2. 임 기**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가능)
- 3. 보 수** 없음(다만, 회의참석 수당 등 실제 지급 가능)
- 4. 응모자격 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가. 세무 및 회계전문가, 경영, 행정, 환경, 도시계획, 주택 건설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력에 있는 사람
 - 나.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또는 4급 이상으로 재직 및 근무경력에 있는 사람
 -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있는 사람
 - 마.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한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서 2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에 있는 사람
 - 사.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직무수행요건

별첨 * 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에서 다운로드

6.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8. 9. 20.(목) ~ 2018. 10. 5.(금) 18: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전달), FAX, 우편 접수 가능
(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다. 접수처
- 우편, 방문(전달)접수
우) 59713 여주시 문수로 106, 8층(문수동, 엘레나호텔) 여주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
- 이메일 접수처 : joker1124@nate.com
- FAX 접수 : 061-662-8221
※ 이메일, FAX, 우편접수시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061-662-8219

7.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방 법 :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심사
- 일 정 : 접수마감 후 5일 이내
- 합격자 통보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일 정 : 서류심사 합격통보 시 면접심사 일정 통보
다. 최종 추천 후보자 발표 : 추천 후보자 개별통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8.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여주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yumcorp.or.kr)에서 다운로드 작성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자율양식)
※ 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5매 이상일 경우 요약서 첨부)
라. 자기소개서 1부(자율양식)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관련증명서(경력, 재직, 자격증 등) 각 1부
※ 지원서에 명시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기타사항

- 가. 1차 접수기간(2018. 9. 4. ~ 9. 19.)동안에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본인이나 서면으로 접수 철회하지 않는 한 지원서 제출이 유지됩니다.
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추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만환청구서 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여주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여주시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1-662-8219)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9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